

시정 소식 1

온양민속박물관 개관30주년 기념 특별전

온양민속박물관의 소장그림 총수는 병풍 70틀 (502점), 날그림 111건 162점, 책자류 10점 등 도합 191건 692점이다.

이 중 도록에 병풍 53건 400점, 날그림 56건 91점, 책 10건을 수록하였다.

특별전에서는 이 중 병풍 17틀과 날그림 73점을 전시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박물관으로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던 온양민속박물관이 10월 25일 개관 30주년을 맞이한다. 박물관 측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소장그림 도록을 만들고 10월 14일부터 특별전을 연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옛그림은 민화 분야에 강점이 있지만 불교그림과 지도그림 쪽에도 수준 높은 소장품을 지니고 있다.

박물관 측에서 1980년대에 전통미술관을 기획하면서 수집품을 늘였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전모를 밝히는 도록출판과 전시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박물관 소장 옛그림을 상징의 미에 따라 길상, 인성함양, 풍속의례, 신앙, 지도, 무늬 등 6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전시하였다.

화장실 청결문화 캠페인 전개

아산시에서는 수도권 전철 개통과 도민체전을 맞이하여 시민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스마트 관광도시 아산건설을 위해 아름다운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청소의 날과 연계하여 화장실 청결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은 아산시의 얼굴이며 청결문화는 아산시민의 긍지입니다.

화장실 청결문화 정착으로 관광객이 다시찾아오는 온양온천을 만들고 문화가 있으며 수준높은 관광 아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연락처 ♣

- ◆주간: 아산시청 환경보호과 (☎ 041-540-2846)
- ◆야간: 시청 당직실 (☎ 041-540-2222)

아산시, 시내버스 노선 대대적 개편



아산시는 10월 3일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했다.

이번 노선개편은 아산시 개척 이래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아산시의 시세확장에 대응하는 한편,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그동안 부분적 노선조정으로 인하여 야기된 간선위

주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160개 노선을 간선/지선/순환 등 98개 노선으로 전면 개편하고, 유사노선 및 중복노선을 통합하여 노선을 단순화하는 한편, 아산신도시 및 신규아파트단지 그리고 공설운동장 등을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고, 대중교통간[버스, 철도, 전철 등] 환승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행방면별 노선번호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노선번호를 쉽게 인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송악방면:100번대, 성환방면:200번대, 신창방면:300번대, 도고방면:400번대, 둔포방면:500번대, 인주방면:600번대, 탕정방면:700번대, 배방방면:800번대, 천안방면:900번대]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초 개편 노선 및 운행시간표를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9월말 아산시 전 세대에 노선개편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9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아산시 개최 확정 아산 장애인체육의 획기적 발전 기회

아산시는 내년 제1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확정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여 아산시장래인체육의 위상강화의 위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10월 충남도민체육대회에 이어 제15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규모 체육대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아산시 체육발전을 획기적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 체육의 확대와 균형 발전, 장애인 교류증진, 우정과 화합 도모, 장애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매년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에서 다음해에 개최하고 있다.

제14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9월 4일부터 5일 2일간 논산 공설운동장의 7개 보조경기장에서 23종목, 235개 세부종목에 선수·임원 등 5천여명이 참가하였고, 이중 아산시 선수단은 210명이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친다.

